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5년차에 접어들며 국제교류원으로서 근무하는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말마다 여기저기서 행사가 열리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을 보면 4년 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코로나19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듯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대면 교류도, 일상 생활도 활기를 되찾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에도 홋카이도와 일본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며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홋카이도는 진화 중!



▲ 건물 노후화로 인해 지난 5월 16일 폐점한 삿포로 시내 상업시설 '피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홋카이도에서 국제교류원 생활을 시작하던 불과 4년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뀐 연호, 소비세와 물가 인상, 캐시리스 결제의 대중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의 도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삿포로 시내에서는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며, 시민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변화가의 낡은 건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삿포로역 또한 2030년 말에 개통될 홋카이도 신칸센역을 짓기 위한 확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올 8월에는 삿포로역 앞 버스터미널과 에스타 쇼핑몰도 문을 닫게 될 예정입니다. 추억이 담긴 장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가는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변해 갈지 기대도 됩니다.

'자판기 천국' 일본

일본 거리에는 자판기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처음으로 일본에 왔을 때, 저는 자판기에서 담배와 맥주까지 파는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판기들은 가지각색의 상품들을 취급합니다. 과일과 샌드위치들 비롯하여 라면, 전골요리 같은 밀키트나 흡술 안주, 냉동육, 심지어 계란까지도 팔고 있는 것을 보면 자판기 상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캐릭터 굿즈나 투명 용기에 담긴 디저트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상품들도 많이 보입니다.

일본의 한 음료 회사는 법인 전용 자판기를 출시했습니다. 직원 두 명이 자판기에 사원증을 동시에 터치하면 음료가 무료로 제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 이 자판기를 설치함으로써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무실에는 대개 정수기와 커피머신, 다과 등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일본에는 사무실에 정수기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근무 시간 중에 마실 물을 각자 사오거나 자판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복리후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자판기는 변화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곤충식' 자판기와 홋카이도 국도휴게소 '루모이'에 설치된 '육아 응원 자판기'입니다.



육아 응원 자판기에서는 종이 기저귀와 액상분유, 물티슈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국도휴게소에는 푸딩과 컵케이크, 지역 특산물인 청어알 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독특한 자판기도 있었습니다. JR 루모이 본선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루모이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국도휴게소에도 한 번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꿈의 신구장 '에스콘필드 홋카이도'



지난 3월에 개장한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는 프로야구팀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의 홈구장이자,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수용 인원은 구장이 위치한 기타히로시마시(北広島市) 인구의 60%인 3만 5천명에 달하며, 이 거대한 구장은 지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삿포로의 베드타운이었던 기타히로시마시의 급속한 개발을 촉진시켰고, 그로 인해 이 지역의 주택지와 상업지의 공시지가는 전국 1위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구장에 인접한 새로운 전철역(2028년 개업 예정) 등도 속속들이 지어질 예정으로, 기타히로시마 지역은 앞으로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

여러분들은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의 홈구장이 있어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동네가 떠들썩했지만, 저는 한국에서 야구를 직관해본 적이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야구 팬이 아닌 제게 야구장은 그다지 매력적인 장소가 아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를 견학하며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F빌리지(에스콘필드 부지)에는 바베큐를 즐기며 숙박도 가능한 글램핑장을 비롯하여, 소문으로만 듣던 구장 내 온천과 호텔, 갓 만들어진 맥주를 맛볼 수 있는 수제 맥주 공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장 내 인기 포토스팟 (타워 11 1층 콩코스 벽면)

타워 11 건물 4층에 위치한 호텔의 '필드뷰' 객실에서는 통유리 너머로 그라운드가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타니와 다르빗슈 선수를 테마로 한 객실이 특히 인기이며, '11'은 두 선수들의 닛폰햄 시절 등번호라고 합니다.



▲온천탕에서 내려다본 구장의 풍경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는 온천과 사우나를 즐기며 경기를 볼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구장입니다. 타워 11 건물 3층에 위치한 'onsen & sauna'에서는 천연탕에 몸을 담그며 온천과 경기장의 분위기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 착용 필수)

구장은 연중무휴인 관계로, 경기가 없는 날에도 파이터스 걸(치어리더)이 구장을 안내해 주는 투어에 참가하거나 상업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투어에 참가하면 감독실, 락커룸, 볼펜, 그라운드 등 평소 공개되지 않는 곳에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투어 요금 : 성인(평일) 3,500엔, (주말 및 공휴일) 4,500엔 / 어린이 1,000엔]

한국에서는 치킨, 햄버거, 삼겹살이 야구장 대표 메뉴라고 들었는데, 일본 야구장에는 스시, 라멘, 야끼토리, 타코야키 등의 메뉴들이 보였습니다.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점포들이 있는 반면, 테라스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세련된 분위기에서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가게도 있어서 F빌리지는 먹방 투어 장소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야구장!

취재일은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1층에는 휴를 만지며 놀 수 있는 야외 놀이터와 장난감들이 가득한 실내 공간 등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다른 친구들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가르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패밀리 스토어 (키즈 굿즈 전용매장)

2층에 위치한 뮤지엄에서는 '생명'을 주제로 한 유료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만물은 연결되어 있기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은 하나의 우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심오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야구장 내부의 부대시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잘 꾸며진 전시 공간이어서인지, 선생님과 견학을 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에스콘필드 홋카이도는 구장 내 어디서든 그라운드가 보이는 개방적인 구조로써, 실제로도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자 '저마다의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시합을 관전할 수 있는 전용 좌석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올 여름에는 캠핑 체험,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저는 이곳을 조만간 또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생동물 주의보

홋카이도에서는 불곰이 시가지에 출몰하거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불곰 주의보', '불곰 경보'를 발령하며, SNS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주변을 포함한 홋카이도 각지에서는 불곰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산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가지나 마을 부근의 삼림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름을 맞아 등산이나 캠핑을 할 때는 '가져온 음식물과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돌아가기', '어두울 때 활동하지 않기', '방울이나 휘슬 소리로 사람의 위치를 알리기', '여럿이 함께 다니기', '곰 퇴치 스프레이 휴대하기' 등 불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한 행동에 유념해야 합니다.



흔히 보이는 까마귀도 조심해야 할 동물 중 하나입니다. 야외에서 음식을 먹거나, 비닐 봉투를 들고 갈 때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번식기인 4~7월에는 공격성이 심해져 등지 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습격당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까마귀 등지가 위치한 가로수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까마귀는 지능이 높아서 사람을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후방에서 날아와 사람의 머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모자나 우산을 써서 머리를 보호하거나, 한쪽 팔을 높이 들고 걸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홋카이도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고, 그 속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공원 산책 중에 여우와 마주치는 것도, 운전 중에 사슴이나 너구리 등의 동물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것도 이곳에서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동물 충돌주의 표지판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홋카이도에서는 불곰들이 주행중인 차량을 쫓아오며 위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기심에 야생 동물에 가까이 다가거나 먹이를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조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